

## 공동체 소식

### ▣ 교구대회 사전모임

- 'Integrated Evangelization' booklet을 읽고 'Crowds to Three' 책자 리뷰 해 오시길 바랍니다.
- 오후 1시 나자렛관(1시-2시)

### ▣ Holy Trinity 체육관 이용 협조 안내

- HT에서 어린이 안전 및 시설보안을 위한 협조 안내입니다.
- 체육관 이용시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용후 보호자는 문을 확실히 닫으시기 바랍니다.

### ▣ 평협회 안내

- 21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 전례 상식

- 주일에 타지역에 있는 경우 근처 한인성당이나 미국성당에서 주일미사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미사 참여를 못할 경우 고해성사를 하시고 영성체 하셔야 합니다.
- 전례봉사자는 미사 참례전 고해성사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일주일간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 는 행위입니다.

### ▣ 구역별 교우 가정 주소 확인

- 각 구역별 가정 주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정별로 구역장에게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된 주소/연락처는 각 구역장님이 총구역장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 ▣ 7월 구역모임 안내

- 3구역 - 20일(토) 7시 30분 고영방 스테파노 가정  
8109 W 144th Ter. Overland Park KS 66223

### ▣ 2019 교무금 책정 가정(신앙생활봉헌서)

**\*고맙습니다. 교무금은 매월 의무입니다.**

고영방 스테파노, 홍순익 마르티노, 정수한 베드로, 이영민 엘리사벳, 김태중 예레미아, 정석원 라파엘, 문석찬 요셉, 박계숙 박헬레나, 박옥희 헬레나, 강승호 아오스딩, 조지연 마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차상욱 펠릭스, 김화년 요안나, 안병환 발렌티노, 김대연 요셉, 현교정 돈보스코, 박희영 카타리나, 김호원 요한, 조진환 베드로, 정연숙 막달레나, 차호섭 요셉, 김동술 세례자요한, 감영진 라파엘, 이우석 프란치스코, 천주영 에스델 (27가정)

### ▣ 전례 성가

	입당	예물	성체	파견
금 주	461	217	174	31
차 주	26	221	498	33

###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주연(세실리아)	고영방(스테파노) 김명은(안젤라)
차 주	김명은(안젤라)	김태중(예레미아) 김시연(엘리사벳)

###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중복사
금 주	정예찬(미카엘)	김지안(요한) 정예진(하나)
차 주	고평원(프란치스코)	김정훈(로베르토) 김정원(안젤라)

### ▣ 헌금 봉사자

금 주	홍순익(마르티노), 김동술(요한)
차 주	감영진(라파엘), 조진환(베드로)

### ▣ 애찬 봉사자

금 주	3조: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차 주	4조: 김화년, 안현숙, 송진희

###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 매 주일미사 후 간단하게 뒷정리 합니다.
- 청소 담당은 편의상 구역을 나뉘었을 뿐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적극적인 협조 고맙습니다.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www.kckcatholic.org  
korean1481@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율법의 정신을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처럼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사려 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불쌍하고 불행한 형제들을 돕도록 합시다.

## 그림 묵상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루카 10, 25-28

제 1 독서 :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30,10-14

<그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화답송 :



◎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 가련한 저는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느님, 저를 도우시어 보호하소서. 하느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감사 노래로 그분을 기리리라. ◎

○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

○ 하느님은 시온을 구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신다. 그분 종들의 후손이 그 땅을 물려받아, 그분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곳에 살리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1,15-20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25-37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 생명의 말씀 가장 큰 계명: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느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사랑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느님을 마음과 목숨, 온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 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은 이 사랑에 봉사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율법에 대해 단지 아는 데 있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데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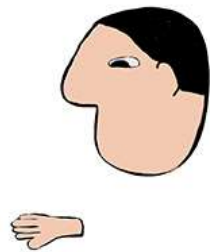
시는 것입니다. 국적, 종교, 정당 등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이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그곳에, 바로 거기에 이웃사랑을 실천에 옮기라는 부르심이 있다고 하십니다.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사랑이 필요한 곳을 교회의 가르침과 자기 마음의 눈으로 살펴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리스도적 연민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느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루카 10,28)

박일 알렉산델 신부 | 반포1동성당 주임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율법교사는 바로 그 ‘이웃’이 누구인가 질문합니다. 사랑의 의무 대상과 그 한계를 확인하고 싶었는가 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동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들(레위 19,34 참조)에게 국한되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모르는 동포들까지도 이웃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적 반대파들도 거부하였습니다. 당시 율법에 대한 이해 정도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정신만이 합당하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아주 사이가 나빴습니다. 함께 뭘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초주검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보자, 가엾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감정은 감정으로만 머물지 않고, 구호 행동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여관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주며 후속 조치까지 부탁합니다. 당시 두 데나리온은 일용직 근무자의 이틀 치 수당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돈은 아닙니다. 영웅적 행동은 아니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조치는 정성껏 취한 것입니다.

타짜: 이봐! 눈보다 손이 빨라야 해. 그래야 이 도박판에서 살아남아.

예수님: 이봐! 눈보다 손이 빨라야 해. 그래야 먼저 사랑할 수 있어.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할까’ 고민하면 이미 늦었어.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루카 10,29)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 말씀의 이삭

## 하느님께 가는 길

4년 전 여름, 로마에서 열린 ‘어머니들의 기도’ 콘퍼런스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들의 기도’는 2년마다 각국 대표들이 참여하는 일주일간의 콘퍼런스를 가집니다. 일정 중에 교황님을 뵈 수 있는 바티칸 광장 수요일 일반 알현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의 기도’ 단체석은 광장 맨 앞자리에 배치되어, 교황님을 아주 가까이서 뵈올 수 있었습니다. 교황님은 강론 시간 외에 따로 초대된 아픈 이들과 신랑 신부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느라 퇴약별 아래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라는 한 어머니는 성당에 오려면 산에서 내려와 버스를 타고, 다시 기차를 타고 역에 내려 성당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다른 평일 미사는 아침 7시라 어렵지만, 오전 10시 수요일과 주일 미사에는 반드시 참석한다는 어머니는 어느 날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성당까지 6시간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미사는 끝났더라도 하느님께 가는 길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 ‘걸음걸음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였다’고....

미사를 마치고 교황님께서 성당 안으로 들어가셨고, 광장도 텅 비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광장을 벗어나 베드로 성당 쪽 긴 줄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30여 분이 지났는데, 우리 단체석 쪽을 보니 몇몇 어머니들이 아직도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교황님’을 연호하고 있는 스페인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황님께서 나타나시어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스페인 어머니들을 보면서 소화 데레사 성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느님께 가는 길은 이 층에 간 어머니를 찾아 우는 아기처럼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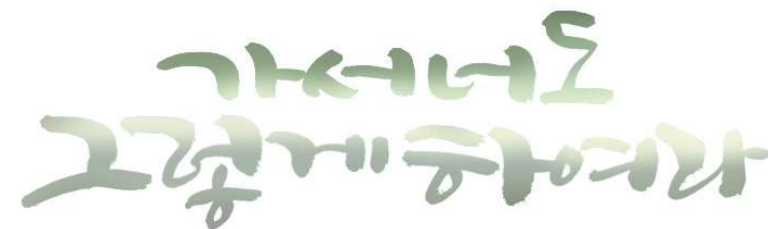
얼마 전 읽은 <바이올린과 순례자>(마틴 솔레스케 지음, 니케복스)에서 저자는 피카소의 말을 인용합니다. “열세 살 때 나는 거장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처럼 그리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 저자는 피카소가 말한 ‘아이처럼’을 ‘유치한 퇴보가 아니라 성숙한 두 번째 천진난만’이라 표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루카 18,17)

지난 5월 30일 일본의 어느 소도시, 신자 수 40여 명인 조그만 성당에서 여섯 명의 어머니들이 ‘어머니들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임 신부님의 배려로 저희가 기도를 소개하며 어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산속에 사는 목수의 아내

엄마를 찾아 목청껏 우는 아기처럼, 멀어도 먼 줄 모르고 달려가는 아이처럼 주님께로 향하는 어머니들.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 많은 어머니들을 만나면서 저는 성숙한 ‘순진무구’ 믿음의 힘을 새롭게 배웁니다.

김미희 마리스텔라  
‘어머니들의 기도(Mothers Prayers)’

## 복음묵상



캘리그래피  
서하영 아폴로니아